
위로라고 했지만,
상처가 되었습니다.

: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는 말

그리고 우리가 건네야 할 말



2차 가해란 무엇일까?



폭력이나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
비난, 의심, 책임 전가 등의 행동을 하여
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'2차 가해'라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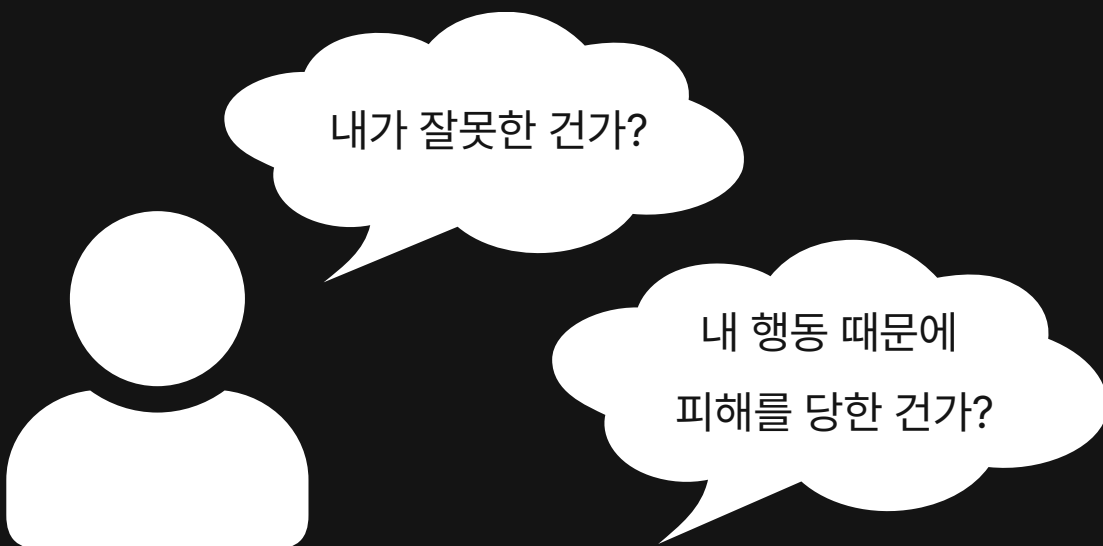
2차 가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
신고와 도움 요청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.

"왜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?"

: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

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
당연히 도망치거나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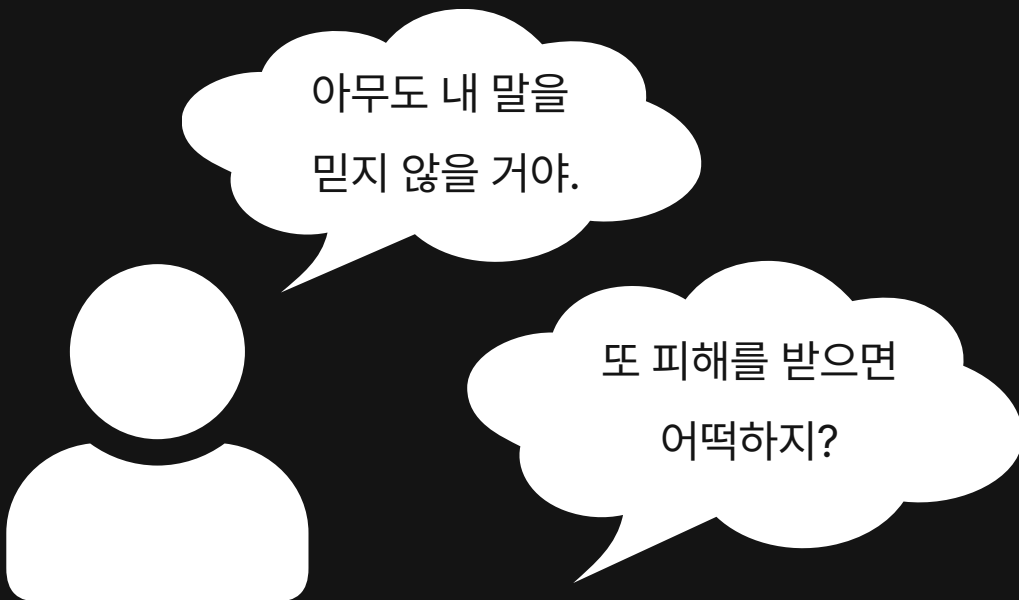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충격 때문에
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"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?"

: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말

피해자는 두려움, 수치심, 보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
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
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"네가 조심했어야지"

: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

어떤 상황에서도 폭력과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.
피해자의 옷차림, 행동, 시간, 장소는
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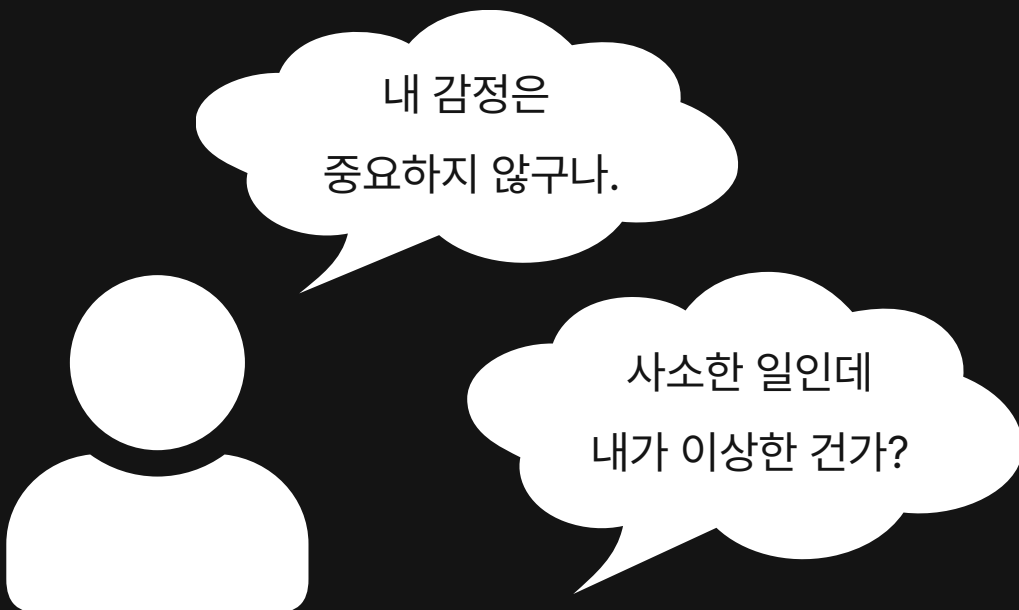


"그 정도는 다 겪어"

: 피해를 축소하는 말

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
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
피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
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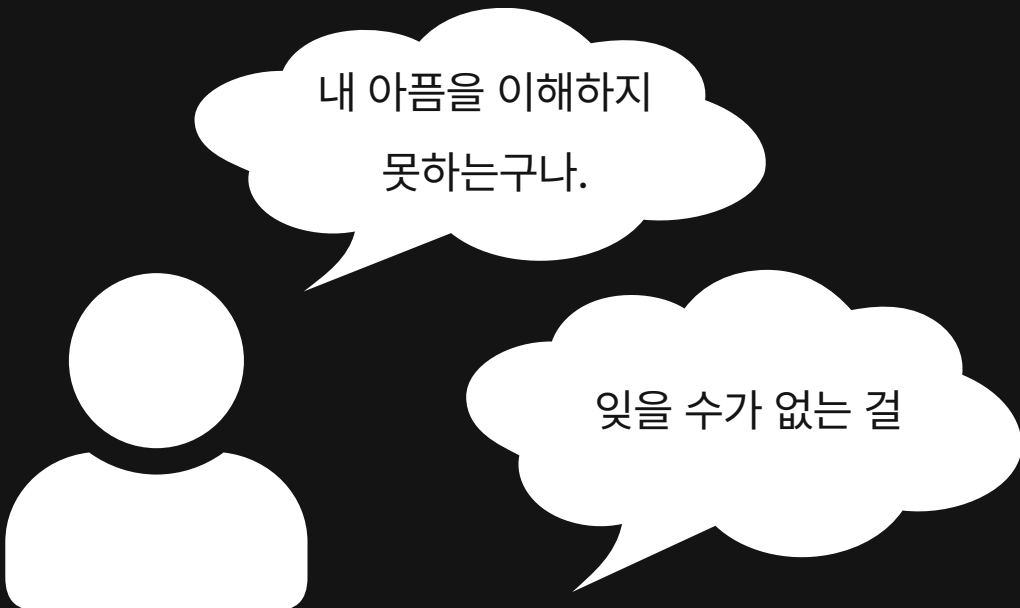
"이제 잊어버려"

: 회복을 강요하는 말

회복에는 정답도,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.

피해자가 아직 힘들어하는데

잊으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



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

: 우리가 건네야 할 말

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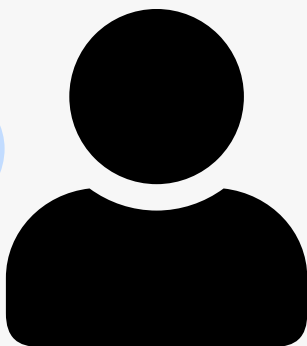
네 말을 믿어.

많이 힘들었겠다.

난 네 편이야.

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.

네 잘못이 아니야.



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

피해자는 해결책보다
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.

"왜 그랬어?" 대신 "많이 힘들었겠다."
그 한마디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.

공감은 위로가 되고, 비난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.

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?
지금 바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계정 팔로우하고
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!